

# ‘품위있는 그녀’·‘도봉순’ 작가 백미경 새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기대 속 출발 순조

### KBS 2TV 첫회 전국 시청률 8%대 김명민, 1인 2역으로 2년만에 안방 복귀 김현주·라미란과 호흡 ‘상반된 매력’

백미경 작가와 김명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KBS 2TV 월화극 ‘우리가 만난 기적’이 8.2%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한 ‘우리가 만난 기적’ 1회 시청률은 전국 8.2%, 수도권 8.4%를 기록했다.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배우 김명민(46)이 줄지에 두 가정을 책임지게 된 가장으로 변신했다.

첫회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같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은행 지점장’ 송현철A(김명민 분)와 ‘주방장’ 송현철B(고창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신(카이)의 실수로 송현철B의 영혼이 송현철A의 몸에 들어갔다.

김명민은 2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을 선택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힘센여자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로 연타석 히트를 한 백미경 작가의 작품이다.

큰 줄거리는 평범한 삶을 살던 가장 송현철(이하 송현철B) 영혼이 불의의 사고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은행 지점장이자 또 다른 가장인 송현철(송현철A)의 몸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김명민은 성공밖에 모르는 송현철A와, 송현철A의 말을 쓴 다정하고 우머리한 송현철B를 함께 연기한다.

김명민은 “‘불멸의 이순신’ 이후 13년 만에 KBS 드라마를 하게 됐다. ‘불멸의 이순신’은 제가 다시 연기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 더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데 대해 “가장 ‘핫한’ 백미경 작가님의 작품이고, 처음에 시놉시스를 듣자마자 대적도 없이 정말 하고 싶었다”며 “이 작품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만큼 백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

김명민은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 만큼 이번엔 극 중 부인도 2명이 됐다. ‘소원도 부부’라 전바라만 날리는 송현철A의 부인 선혜진(김현주 분)과 송현철B의 부



라미란, 김명민, 김현주

인 조연화(라미란)다. 김명민은 “두 분과 작품을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현주 씨는 현장에서 저를 긴장시킨다. 묘한 설렘이 있어서 좋다. 반면, 미란 씨는 제 긴장을 풀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상반된 매력을 가진 두 분과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 선혜진을 연기할 배우 김현주(41)는 “제가 주도해서 하는 드라마를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김명민 선배님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 기회가 생겨 좋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제가 마지막에 캐스팅됐는데 김명민 선배님, 라미란 씨가 출연한다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도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명민 선배님한테 배우 기회가 와서 기쁘고, 미란 씨도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만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는 선혜진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는 “송현철A와 과거엔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재는 이혼 위기다. 그런데 송현철A의 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송현철

B가 들어오면서 변화할 것”이라며 “송현철A의 말을 쓴 송현철B에게는 원래 아내인 연화(라미란)보다는 전혀 새로운 제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화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쾌활한 데 혜진은 차분하고 약하지 않은 면이 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라미란은 “송현철B에게 저는 익숙한 사람이니 혜진에게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다”며 “캐다가 연화의 이미지가 ‘촌스러운 세시방’인데 연기하기가 영 쉽지가 않다. 그래도 세시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웃었다.

라미란은 또 “저 역시 백미경 작가님이 대부분을 쓰신다고 해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며 “기대대로 역시 다음 대본이 매번 궁금하다”고 말했다.

연출은 ‘힘센여자 도봉순’을 통해 백미경 작가와 이미 한 차례 호흡을 맞춰본 이형진 PD가 맡는다. 김명민, 김현주, 라미란 외에 고창석, 엑소 카이, 조셀리, 최병모, 최성원, 황보라 등도 출연한다. /연합뉴스

## 최지우 “연하 신랑 IT업계 종사자”

### 연기활동 이어갈 예정

지난달 29일 깜짝 결혼식을 올린 톱스타 최지우(43·사진)의 신랑은 연하의 IT업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지우의 신랑은 30대의 직장인으로, IT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최지우 씨의 신랑은 훨씬한 키의 전형적인 훈남으로 신부보다 어리다”고 귀띔했다.

앞서 최지우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신랑에 대해 “1년여간 교제한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간단한 정보만 공개해 궁금증을 키웠다. 최지우가 연애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려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고, 신랑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다.

최지우 역시 자신의 팬카페에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신랑에 관해서는 소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참석하시는 가족들과 공인이 아닌 그분께 혹시나 부담될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미리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만 했다.

소속사는 “결혼을 앞두고 최지우 씨에게 여러 차례 신랑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웃음으로 답변하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최지우는 결혼식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비공개 웨딩을 치렀다. 식후 석양의 웨딩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무리했다. 물론, 신랑은 제외하고 본인만 찍힌 사진이다.

최지우는 3월29일 오후 5시30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얼 호텔 7층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호텔 홈페이지에 소개된 화려한 결혼식장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별도의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예약장으로 꾸며서 말 그대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식당은 총 40석 이 마련됐으며 가족만 초대했다.

별도의 청첩장이나 예식장 안내도 없었기에, 당일 시그니얼 호텔을 찾은 사람이라도 최지우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예식은 작은 교회 결혼식처럼 소박하게 치러졌다. 단상에



꽃이 놓여있고 그 앞에 하객들 의자가 놓인 형태였다. 성악가의 축가 정도가 별도의 코너로 마련됐으며, 여느 연예인 결혼식과 달리 일체의 협찬 없이 치러졌다. 예식 후에는 최지우와 신랑은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최지우는 결혼에 앞서 연예계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결혼식에 대한 보안이 유지됐다. 소속사에도 결혼식 하루 전에야 알렸을 정도다. 결혼식에 연예계 동료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속사 관계자도 소수만 예식 사진 공개를 위해 참석했다.

최지우와 친한 한 배우는 “우리로 기사를 보고 알았고 너무 깜짝 놀랐다”며 “조용하게 치르고 싶어서 연락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지우는 예식 후 소속사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잘 살겠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 항상 기억하면서 배우로서 변함없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우는 3월31일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tvN 4부작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출연했으며, 결혼 후에도 연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제주 4.3 70주년 특집다큐 그날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추리의 여왕 시즌2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20 월요기획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 (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재) 50 판다랑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 (재)	0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빠뽀 뽀모야 놀자 스페셜 50 할머니네 통가지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뉴스르서트	00 싱글와이프 2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보도 지오그래피	00 스톤에이지 15 영웅발랄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특선다큐 푸른 하늘을 위한 투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55 할머니네 통가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0 시사토크10'			
10	45 UHD 스포츠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3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프 2~2부
12	20 인간극장 스페셜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프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료칸 속으로 - 끝없는 진화)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도다리 축국과 속 연근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할랄라 뽀우 09:00 똑딱맨 09:15 얼마 까투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재)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비행(재) 14:30 다테니즈 15:00 호기심 소녀 노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할랄라 뽀우(재) 16:45 뽀뽀뽀 유치원 1~2(재) 17:15 얼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몬카르(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지중해 황금루트 스페인, 모로코 태양이 비추는 곳, 시골의 맛)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엄마의 소쿠리 3부 꽃 피는 산골마을) 21:50 EBS 다큐프라임 (100세 쇼크- 늙은 신인류의 진화 노인 되기) 22:45 극한직업 (버스 캠퍼스와 컨테이너하우스)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비행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2월 19일 丙寅)

<b>子</b>	36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살펴보자. 48년생 답답할 수다. 60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72년생 질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난감해진다. 84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2, 89	<b>午</b>	42년생 소모적인 경쟁보다 생산적인 화합이 좋다. 54년생 이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66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78년생 평일을 도모할 정도는 될 것이다. 90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33, 91
<b>丑</b>	37년생 점점 호전된다. 49년생 오늘 다루는 것이 일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61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있다. 73년생 약간의 주려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85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6, 41	<b>未</b>	43년생 소중함 경험 될 것이다. 55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67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부터 가능해 질 것이다. 79년생 연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91년생 뒤돌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행운의 숫자 : 63, 01
<b>寅</b>	38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50년생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62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4년생 유명무실하다. 86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6	<b>申</b>	44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다림을 것이다. 56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68년생 순간적인 성급함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야기하리라. 80년생 그러러니 하고 넘어가라. 92년생 꼼꼼하게 비교해 보라. 행운의 숫자 : 36, 38
<b>卯</b>	39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51년생 보충하여 뒷받침 필요가 있다. 63년생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75년생 미흡한 점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87년생 국면을 이끄는 제반 장자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5, 49	<b>酉</b>	45년생 기대도 컸던 만큼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될 것이다. 57년생 목전의 사세를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69년생 파산적으로 몰려오는 형상이다. 81년생 의지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 보인다. 93년생 요건 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행운의 숫자 : 45, 04
<b>辰</b>	40년생 인식의 변화의 폭이 크다. 52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 되리라. 64년생 진땀을 뺀 일이 생길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덤벼야 한다. 76년생 비단 우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88년생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19, 54	<b>戌</b>	34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46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58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70년생 생 한 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82년생 순간의 작각이 커다란 병패를 낳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20
<b>巳</b>	41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53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65년생 손가락을 닦아두어 실행해야 하느니라. 77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 89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7, 27	<b>亥</b>	35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행하라. 47년생 반복적인 번거로움은 청산하는 것이 좋다. 59년생 상생에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83년생 매우 부담스러운 짐을 덜어 주는 이가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87, 1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